

2016년 12월 10일, 제주시 이도1동 윤성인씨 댁, 이현정 조사.
윤성인(여, 1930년생, 제주시 이도1동)

[조사자] 도체비. 아는 거 잇어마씨?

[제보자] 아. 도체비는 우리 친정 어머니가.

[조사자] 음.

[제보자] 묵은 도남 잇잖아.

[조사자] 묵은 도남.

[제보자] 도남 동산이 넘어강. 올라간 다음에 거기 마을이 잇었어. 겨면, 옛날에는 우리 도남에서는 내에, 저, 지금 한내같은 디 잇잖아? 내엿 물을 먹어났지이. 먹는 물은 먹엇인다. 그 물이 뵈뜨면, 어딿 물을 먹느냐민 이제 도남 그, 동산 내려왕, 거기는 샘물이 잇었어.

[조사자] 샘물?

[제보자] 샘물. 샘물이 잇이믄, 그 샘물을 아침 새벽이 왕 저가지. 물이 귀헌 때니까. 게믄 밤이 자당 어느 때도 모르고, 그때는 시계가 없으니까. 돌 뜨는, 헤, 저, 별 뜨는 걸로. 새별 뜨는 걸로 짐작을 해서 물을 질레 덩겄덴. 어머니가.

나는 어린 때난 몰라도. 게믄, (한숨) 그거를 짐작헤 내려왕 물을 질영 가당 보면, 막 앞에 여자가, 막 걷는덴. 하얗게 출렁, 막 걷는덴.

“저게 사람인가, 귀신인가?”

헝 보면, 밑에가 없덴.

[조사자] 아, 아래가?

[제보자] 응, 아랫드리가 없어. 우만 보여, 우만 보여정. 겨믄 그냥 머리가(웃음) 다 일어 사지. 경 해도 그걸 참아가지고 건당 보믄 없어진덴.

[조사자] 아, 거 엇어지는 거. 겨믄 물 뜨레 다닐 때 주로 봤구나.

[제보자] 응?

[조사자] 도체비를 물 뜨레 다닐 때 주로 봤어.

[제보자] 그렇지. 겨난 그게 어무니가 그 말을 곱아, 물 질영 오당 보면, 물 질레 가당이 나 오당 보면, 경 하얗게 저런 소복입은 여자가, 앞에서 걷는데. 걷는 거 보면 밑에가 없다고. 웃도리만 잇곡.

• 핵심어 : 여자, 둔갑, 도체비, 묵은 도남, 샘물, 새벽, 아랫드리